

“교육 공공성 강화” 자화자찬에 대학가는 “뒷걸음질 개혁”

교육부, 교육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무상교육 성과 꼽아
대학, 입학↓ 등록금 동결에 재정 바닥

교육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 동안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대학가에서는 “고등 교육정책과 입시 정책은 뒤로 뒷걸음질을 했다”고 한 목소리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를 열었다. 교육 신뢰회복과 공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실행했던 정책 점검과 성과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무상교육 실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구조조정에 폐교 속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입학자원 감소와 함께 대학 등록금도 11년째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은 바닥났다는게 대학가의 목소리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18년 서울 시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 (9만771명→8만7572명)하고, 서울 외 수도권지역 대학 정원은 9.9% 감소 (11만1386명→10만368명)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12곳으로, 지난해에만 4개 대(대구미래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학생 미충원으로 2021년까지 최대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학생수 감소와 재정난 심화 등 이중고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18년 서울 시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 (9만771명→8만7572명)하고, 서울 외 수도권지역 대학 정원은 9.9% 감소 (11만1386명→10만368명)했다.

지방대학들의 ‘줄폐교’ 위기에도 교육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개선책 없이 ‘대학 자율’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대 위기를 방치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혁신지원방

안’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빨라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대입 정원 감축을 위해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평가했던 기존 방침을 포기하고,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달리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지방 대학을 더욱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면상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진단지표 가운데 ‘충원율’ 비중이 확대돼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교육부 진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원율을 더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즉, 정원 감축으로 정부 지원을 받든지 자율 혁신으로 정원을 채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계는 “충원율 경쟁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불리한 지방대들이 대대적인 정원감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육개혁 여론 따라 모순된 정책 나와

주요 대입공약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철회되는 일도 잦았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최근 학생부종합전형 첫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굵직한 교육정책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기존 대선공약, 정권출범 이후 밝힌 구상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교육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논술… 시나리오 짜둬야

수능 가채점 결과에 응시 여부 판단
가채점 결과 높다면 수시납치 주의
모의 논술문제 활용, 실전환경 연습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직후 주말부터 일부 대학들의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짧게는 시험 후 1~2일 후 수능 성적에 따라 응시 여부를 정해야하는 만큼 미리 수능 이후 시나리오를 짜 둘 필요가 있다.

수능 직후 주말인 16일과 17일부터 건국대·경희대·단국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서울여대·숭실대 등이 논술고사를 치르고, 다음 주말에도 경북대·부산대·광운대·세종대·중앙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 논술이 이어진다.

우선 수능을 치른 뒤 가채점을 해보고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논술전형 특성상 대체로 상향 지원을 한 수험생이 많기는 하나,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기 위해 수능 위주 정시 지원 대학까지 고려해 응시 여부를 정하는 게

좋다.

특히, 가채점 결과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경우 ‘수시 납치’(수시모집에 합격해 이후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입시업계 은어)를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입시 결과와 입시업체들의 모의지원을 통해 정시 지원 대학보다 안정 이하의 지원은 아닌지 확인하자.

가채점을 토대로 정시 지원대학 수준을 파악했다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입시업체들이 공개하는 가채점 등급컷의 경우 수험생 일부 표본으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실제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여러 업체의 등급컷을 고려하고 다소 애매한 점수라면 응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논술고사까지 시간이 있다면 기출문제나 대학 모의 논술 문제를 활용해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이 때 대학 고사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답안지

양식을 활용해 실전 환경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답안 작성성이 완료되면 대학이 제시한 모범답안이나 논술 해설 영상을 통해 본인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자.

만약 논술고사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 해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논술고사 대비에 있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해설 중심으로 학습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해설을 통해 풀이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단기 간 학습에는 효과적이다.

논술고사 당일에는 최소 1시간 일찍 고사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시험 날 여러 대학이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고 응시 인원도 많아 평소보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가용이나 버스보다 시간 예측이 가능한 지하철 이용이 좋고, 고사장 건물 위치를 미리 파악해 이동하는 게 좋다.

/한용수 기자

수험생, 학교서 운전면허 교육 받는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유해환경·숙박시설 등 집중 점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험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 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해 9개 시험장에서 우선 적용돼 올해 전국 82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서울 노량진종로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학교 1만8592명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된다. 14일부터 학교의 일괄 신청을 받는다.

신용관리나 증권 등 금융교육, 근로계약서 등 노동교육과 7개 지방국세청에서 세금 교육도 이뤄진다. 금융 교육에는

460개교가 신청했고 노동교육은 70개교 1만명이 신청해 교육을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주관의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 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수험생 및 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 확인이나 신청은 교육부 누리집과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온’,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서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수능 직후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시설 ▲차량대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한 학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한용수 기자 hys@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더랜치브루잉컴퍼니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랜치브루잉컴퍼니는 대전에 위치한 프랑스 스타일의 수제맥주 양조장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와 관련된 교류 촉진과 더불어 더랜치브루잉 소속 임직원들에게 평

생 교육과 재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더랜치브루잉 임직원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 시 교육비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더랜치브루잉컴퍼니는 프랑스 국적 프레데릭 헤센 대표이며, 헤드브루어로서 국내 다른 양조장과 다른 프랑스 스타일을 가미한 로컬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용수 기자

한국외대 짧지만 굵은 묘사 담은 영화제 개최



제2회 짧고 굵은 아시아영화제 포스터

올해는 특히 터키 신예 감독들의 작품과 에르잔 셀림 웨고즈의 단편영화도 선보인다.

/한용수 기자